ISSN 2509-2817 KiDRS Korea Institute of Design Research Society 통권 31호, 2024. Vol.9 No.2

민족무형문화유산 전시와 민족커뮤니티 간의 관련성 분석

중국 귀주(貴州) 소칸 장각묘족(梭戛長角苗族) 커뮤니티을 사례으로

Analyzing the Relevance between the Display of Ethn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Ethnic Communities

A Case Study of the Suoga Longhorn Miao Community in Guizhou, China

주 저 자 : 호 정 (Hu, Ting) 국민대학교 공간·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과

교 신 저 자 : 민경훈 (Min, Kyeonghoon) 인덕대학교 실내건축과 조교수
ggangcha00@naver.com

https://doi.org/10.46248/kidrs.2024.2.377

접수일 2024. 05. 24. / 심사완료일 2024. 06. 02. / 게재확정일 2024. 06. 12. / 게재일 2024. 06. 30.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ethn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hibitions and the corresponding communities, based on the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emphasizes the dynamic nature of cultural heritage and the vital role of ethnic communities as participants. The study uses three dimensions - "cultural empowerment," "cultural identity," and "community participation" - to explore this relationship. It uses the Soga Changjiao Miao community in Guizhou, China as a case study, concluding that ethnic community groups play a significant role in constructing ethn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hibitions. It's offers a valuable perspective for researchers.

Keyword

Community(커뮤니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무형문화유산), Relevance(관련성)

요약

이 연구는 UNESCO에서 발행한『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에서 제안한 '커뮤니티'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민족무형문화유산 전시와 민족커뮤니티 간의 연관성 분석에 중점을 둔다. 민족무형문화유산의 본질은 끊임없이 건설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문화유산 전시 과정에서 민족 집단은 이해관계자이자 참여자로서 자신의 문화유산 전시를 이해하고 가치 판단을 한다. 무형문화유산을 전시하는 연구자들은 민족 커뮤니티 집단의 사고와 문화적 실천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 한다. 이 기사는 주로 '문화 권한 부여', '문화 정체성' 및 '지역 사회 참여'의 세 가지 차원을 사용하여 민족 무형 문화유산과 민족 커뮤니티 그룹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그리고 중국 귀주(貴州) 소칸 장각묘족(梭戛長角苗族) 커뮤니티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민족무형문화유산 전시활동 구축에 있어서 민족커뮤니티 집단이 중요한 주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은 무형문화유산을 전시하는 연구자들에게 문화커뮤니티 집단 위주의 연구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대상 및 방법

2. 기본 개념

2-1. 커뮤니티(Community)의 개념
2-2. 무형문화재의 개념
2-3. '무형문화유산'과 '커뮤니티'의 관련성

3. 관련성 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3-1. 관련성 분석을 위한 측면
3-2. 관련성 분석의 틀 및 방법

4. 관련성 분석을 위한 사례 연구

4-1. 사례 선정 이유
4-2. 사례 분석
4-3. 사례 분석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의 세계화, 문화통합의 충격 속에서 지역성을 강조한 무형문화재 보존은 이제 전 인류의 공감대가 되었다. 한 민족의 문화유산은 정적인 물질적 형태의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계승집단이나 개인이 가진 다양한 지식, 기술, 실천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이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보호를 결정 짓기 때문에 인간의 요소를 충분히 중시해야 한다. 커뮤니티 참여라는 표현은 2003년 무형문화재 보호협약 영문 판에 등장했다. 이 협약은 무형문화재의 과정적 보존에 있어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시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실천방식이다. 현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시연구는 대부분 전문가와 학자들이 전시기술과 전시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전시실천과 문화집단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무형 문화재 보호 조약 』에서 제시한 '커뮤니티의 참여'라는 개념 하에 민족무형문화유산 전시활동에서 민족 집단의 '참여'가 어떻게 구현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련 커뮤니티나 전승자가 전시행사의 주체로써 눈을 돌려 다양한 문화변천에 대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문의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본문은 중국의 소수민족 집단과 그 민족 집단을 기반으로 한 무형문화유산 전시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먼저 유네스코『무형 문화재 보호 조약』에서 '커뮤니티'의 참여성에 대한 묘사를 정리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전시범위를 결합하여 민족무형문화유산 전시활동과 민족공동체 간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틀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그 틀을 사례분석에 도입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이 글의 초점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시기술이 아니라 지역민족 집단의 민족문화 전시실천 시 실제 표현을 통해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민족커뮤니티가 민족문화 전통의 부흥과 재건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적 정체성과 참여 능동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 기사의 연구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이 기사에서 다루는 주요 방법은 문헌 분석, 현장 조사 및 설문 조사이다.

2. 기본 개념

2-1. 커뮤니티(Community)의 개념

『상상 속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산포』(1983년)라는 저서에서 미국의 저명한 학자 Benedict Anderson은 결국 우애관계(fraternity)로 community를 정의하면서 커뮤니티나 공동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다시 의미적으로 중첩되기 시작했다.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된다. 깊고 평등한 동지애. 결국 지난 2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민족을 위해 살육이나 죽음을 감수하도록 부추긴 것은 바로 이런 우애 관계였다.'[1] 이 책이 출판된 후 '커뮤니티/공동체'의 의미로서 community는 한때 관련 학자들의 연구에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가 되었다.

미국의 사회학자 Etzioni Amitai는『Creating Good Communities and Good Societies』(2000)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커뮤니티(community)는 두 가지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A.그것은 한 무리의 개인 내부 감정-충만(affect-lad-en) 관계이며, 이러한 관계는 항상 서로 얽히고 강화된다(순수한 일대일 또는 체인적인 개인 관계가 아니다). B.그것은 공유된 가치, 규범, 의미, 공유된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어느 정도 약속, 한마디로 특정 문화에 대한 어느 정도 약속이다.'[2] Amitai Etzioni는 위의 정의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정의는 커뮤니티/공동체(community)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연결고리와 공유 가치를 제안한다.

커뮤니티/공동체(community)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사회과학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문화유산에 침투해 있다. 세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이라는 개념에서 커뮤니티나 공동체에 대한 국제적 교류 논의가 일어 있다. 이 글은 연구 목적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중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에 대해 설명한다. 이 글의 후부에 논의되는 모든 '커뮤니티' 또는 '커뮤니티 참여' 개념은 주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무형문화재의 주체라고 불리는 것을 의미한다.

---

1)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확산」, 오叡인 (吳叡人) 옮김, 상하이 세기 출판사, 2005,p.7.

2)Etzioni Amitai, Creating Good Communities and Good Societies, Article in Contemporary Sociology A Journal of Reviews,2000,p.188.

2-2. 무형문화재의 개념

2-2-1. 무형문화유산

세계 경제 통합의 발전 추세와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화 과정은 인류 생활 전통(특히 정신문화 전통)의 변화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무형 유산을 포함한 인류 문화유산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이 1950년 발의한 『문화재보호법』(Act on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3]은 '무형문화재'와 '무형민속 문화재'를 법 테두리 아래 명확하게 나열해 '무형문화재'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문화재라는 이념 아래 1962년 『문화재보호법』(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4]을 공포하면서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네 가지로 정의했다. 이러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유래된 '무형문화재'라는 관념은 1970년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계무형문화유산 사업의 시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UNESCO 제29차 전체회의에서 '인류구술 와 무형유산'의 범위를 규정한 『인류구술 와 무형유산 대표작 신고서 작성 지침』(1997)이 채택되었다. 이듬해 유네스코 집행국 제155차 회의에서 『인류구술 와 무형유산의 대표작조례』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guide for the presentation of candidature files)(1998)가 채택되면서 '인류구술 와 무형유산'의 개념과 그에 따른 보호조치가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

2-2-2. UNESCO가 부여한 '무형문화재'의 정의

UNESCO는 제32차 총회에서 『무형문화재 보호에 관한 조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하고 무형문화재의 개념과 범위를 국제 규범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1조. 무형문화유산'은 다양한 커뮤니티, 그룹, 때로는 개인이 문화유산의 일부로 간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행, 개념적 표현, 표현, 지식, 기술 및 관련 도구, 실물, 수공예 품 및 문화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대를 이어 각 지역사회와 집단이 주변 환경에 적응하고 자연과 역사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이들 지역사회와 집단에 정체성과 지속성을 부여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존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 협약에서는 기존의 국제 인권 문서, 커뮤니티, 그룹 및 개인 간의 상호 존중의 필요성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준수하는 무형문화유산만 고려한다.

제2조. 위 제1조 항의 정의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은 다음 측면을 포함한다. (1)무형문화유산의 매개체인 언어를 포함한 구두의 전통 및 표현. (2)공연예술. (3)사회실천, 의식, 축제 행사. (4)자연계와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천. (5)전통 수공예.'[5]

2-2-3.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

중국은 국제협약문서에 근거하여 중국문화유산보호사업의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국무원에서 『국무원무형문화유산보호사업 강화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2005, 제14호)을 반포하였으며, 부속서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작 신고평정 잠정방법』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제2조 무형문화재는 각 민족의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대중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 표현(민속행사, 공연예술, 전통지식과 기능, 이와 관련된 기구, 실물, 수제품 등)과 문화공간을 말한다.

제3조 무형문화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전통적인 문화표현, 공연예술, 전통지식, 기능 등. 2. 문화공간, 즉 정기적으로 전통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전통문화표현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로서 공간성과 시간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무형문화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문화 매개체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두 전통. (2)전통 공연 예술. (3)민속행사, 의례 및 축제. (4) 자연계와 우주에 관한 민간 전통 지식과 실천. (5)전통 수공예 기능. (6)위의 표현과 관련된 문화공간이다.[6]

'무형문화재'라는 개념의 정의에서 전통문화와 민속문화가 주로 강조되고 있다. 범위 정의에서 국제 협약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무형문화재의 활성화로 인해

3) URL: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6935

4) URL: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12943

5) URL:https://ich.unesco.org/doc/src/2003_Convention_Basic_Texts-_2022_version-ZH.pdf.(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중국어 버전을 인용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6) URL:https://www.gov.cn/gongbao/content/2005/content_63227.htm

국제사회는 아직까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형문화유산은 특정 문화 환경에서 탄생, 발전한 것으로 집단만의 사고방식과 정교한 기술을 반영하고 역사의 과정을 끊임없이 재창조하며 현대와 미래의 문화적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류문화유산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2-3. '무형문화재'와 '커뮤니티'의 관련성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는 한때 국가기관과 전문가, 학자들의 활약상에 불과했고, 국익이나 유산의 가치가 무엇보다 높아 지역사회는 사실상 '탈권'의 상황에 놓였다. UNESCO가 1972년 채택한 세계『문화와 자연유산 보호』[7]에 관한 조약(1972년 조약)은 물질형태문화유산 관리에 있어 지역사회의 시각과 위상이 결여되어 있다.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문화유산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과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UNESCO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에서 문화유적과 문화실물에 대한 중요성을 유산의 주체인 '사람'과 그에 의해 전승되는 문화의 표현형태, 관념, 지식, 기예와 실천으로 옮겼다. 2003년 『조약 』및 관련 문서에서는 지역사회를 정의하지 않고 유산과 유산을 보유한 커뮤니티의 관계를 '바꿔서'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재의 전승자와 실천자, 그리고 그들로 이루어진 문화 커뮤니티만이 무형문화재의 인정, 보호, 관리에서 가장 역동적인 주체이다. 2003년 『조약』이 다른 국제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은 문화유산의 공식문서에 공동체, 집단, 개인의 표현을 최초로 사용함으로써 그 분야에서 지역사회, 집단, 개인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는 점이다.

UNESCO는 2006년 일본 도쿄에서 또 한 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목록 작성과 유산보호에 있어서 커뮤니티 참여요구에 관한 조항도 이번 회의에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첫째, 커뮤니티는 인류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그 공유된 역사적 연결 속에서 생겨나는 정체성이나 소속감은 그 집단이 무형문화유산을 실천, 전승하는 데서 비롯된다. 둘째, 집단에는 동일한 기술, 경험 및 특수 지식을 지역사회 내외에서 공유하는 사람들이 포함되므로 감독자, 실무자 및 견습생으로서 현재 또는 미래의 무형문화유산의 실천, 재창조 및 계승 과정에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개인은 지역사회 내외에서 고유한 기술, 지식, 경험 또는 기타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감독자, 실천자(때로는 견습생)로서 현재 또는 미래의 무형문화유산의 실천, 재창조 및 계승 과정에서 특정한 역할을 담당한다.[8]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보존이념이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강조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관련 지역사회와 집단에 부여하는 것은 많은 민속학자와 인류학자가 국제법률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보호의 길'이다.

3. 관련성 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3-1. 관련성 분석을 위한 측면

민족 집단은 '민족' 또는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문화, 언어 및 역사적 특성을 공유하고 가치 시스템을 공유하는 관련 그룹 그룹을 나타낸다. 커뮤니티(community)의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유대와 공유가치를 바탕으로 한 민족 집단도 하나의 민족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 민족무형문화유산은 모든 민족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문화유산의 일부로 간주되는 다양한 전통문화 표현을 말한다. 민족무형문화유산의 전시활동은 민족무형문화유산의 내용을 민족공동체의 가치 지향적으로 전시하는 실천방식으로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 장은 2003년 『조약』의 관련 규정의 해석을 기반으로 하며 주로 '문화 권한 부여', '문화 정체성' 및 '커뮤니티 참여'의 3측면에서 국가 무형 문화유산 전시 활동과 국가 지역사회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3-1-1. '문화 권한 부여'의 측면

무형문화재의 보호는 '탈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경계해야 한다. 2003년 『조약』의 내용에서 보듯이 국가, 기관, 전문가가 유산의 가치와 관리를 결정하던 과거의 패턴을 개혁하여 국제법의 맥락에서 지역사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체결국들이 유산보호의 전 과정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커뮤니티를 진정으로 '권한 부여'와 동등한 대화의 문화적 초석으로 간주해야만 유네스코 협약의 틀과 실천 시스템에서 커뮤니티 참여의 핵심적 위치를 진정으로 이해

7) URL:https://whc.unesco.org/archive/convention-ch.pdf(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중국어 버전을 인용하여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8) Blake Janet. 'UNESCO's 2003 Conven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implications of community involvement i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London:Routledge, 2008.p.60.

할 수 있다. 2003년 『조약』은 유산 관리에서 지역사회의 지배적 지위를 보장하고 체약국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규정은 깊은 이론적 근거와 명확한 목표에 기반한 유산 보호 논의 및 실천 시스템을 구성 했다. 기본 출발점은 커뮤니티(그룹 및 개인 포함)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무형문화유산 전시활동과 민족공동체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첫 번째 측면을 '문화적 권한 부여'라고 한다면, 해당 민족공동체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에서의 권한 부여 상황, 지역사회 조직구조 및 책무를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3-1-2. '문화 정체성'의 측면

문화재 보존의 실천에서 '진실성'은 항상 주목을 받고 논란이 되어 왔다. 1994년 11월 1일부터 6일까지 일본 정부 문화사무부의 초청으로 일본 奈良에서 개최된 '세계유산협약에 관한 奈良 진정성 회의'에서 『奈良 문서』[9]가 채택되었다. 이 문서는 1964년 '국제문화기념물 및 역사적 장소의 보존 및 복원 헌장'에서 '진실성'의 개념을 더욱 확장한 것이다. 이 문서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진실성'이 시대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Harriet Deacon & Rieks Smeets(2013)는 '문화존중과 유산의 다원성을 강조하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유산의 진정성과 귀속성을 중시하는 유산의 특성, 다학제적 및 지역사회 개입적 관점에서 유산의 인정 등을 시도한 문서"라고 밝힌 바 있다.[10]

『奈良 문서』의 제출은 2003년『조약』에 영향을 미쳤다. '커뮤니티'는 유산을 식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산과 관련된 관행과 심지어 유산에 대한 혁신적인 권한이 커뮤니티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2003년 『조약』은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포기했다. 진정성'이라는 개념은 커뮤니티, 그룹 및 개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형 문화유산의 변동과 혁신의 살아있는 특성에 반하는 객관적이거나 타자의 인지적 시각인 '원천성'의 가상을 어느 정도 미리 설정한다. 2003년 『조약』은 유산 프로젝트가 '원천성'이나 '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유산실천자의 현재 삶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11] 중국의 바모취브 추녀(巴莫曲布嫫) 교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틀 안에서 유산의 가치는 외부에서 확인된 가치가 아닌 관련 지역사회 내부에서 확인된 가치로 이해되며, 이러한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지역사회 참여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12]

위 문헌에 의하면, 무형문화재의 '가치'와 '진실성'은 지역사회 내부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전시활동과 민족공동체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두 번째 측면은 '문화적 정체성'이며, 실제 전시상황과 전시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도로부터 조사 및 분석이 필요 한다.

3-1-3. '커뮤니티 참여'의 측면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 2006년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 2007년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 위원회인 청두회의와 도쿄회의를 개최하여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과 시급히 보호되어야 할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공식화한 것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각국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중시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체약국은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할 때 그러한 유산을 창조, 지속, 계승하는 공동체, 집단, 때로는 개인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들을 받아들여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5조).[13] 또한 『운영지침』에서도 종사자와 계승자를 교육계획에 참여시키고, 학교와 교육기관에 가서 유산을 설명하도록 한다(107단5조)고 밝히고 있다.[14] 관련 커뮤니티, 그룹 및 관련 개인은 자유의사가 존중되고 사전에 인지되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에 가장 널리 참여할 것을 보장한다.'(101단2호).[15]

---

9)URL:http://whc.unesco.org/events/gt-zimbabwe/nara.htm

10) Deacon Harriet & Smeets Rieks, "Authenticity, Value and Community Involvement in Heritage Management under the World Heritage and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s", Heritage & Society,2013,p.131

11)UNESCO, 2003년 무형문화재보호협약 기본문서(2016년판), 유네스코,2016,p.6.

12)팔모추레 (巴莫曲布嫫) 저, 장링 (張玲) 옮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민족문학연구,2016,p.6.

13)UNESCO, 2003년 무형문화재보호협약 기본문서(2016년판), 유네스코,2016,p.5.

14)UNESCO, 2003년 무형문화재보호협약 기본문서(2016년판), 유네스코, 2016,p.16.

2003년『조약』은 유산 보호 프로젝트에서 커뮤니티가 참여하는 집단 관행, 상속 및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전시활동과 민족커뮤니티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세 번째 측면은 '커뮤니티 참여'이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전시활동 참여 실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3-2. 관련성 분석의 틀 및 방법

지난 절의 민족비 문화유산 전시활동과 민족커뮤니티와의 연관성에 대한 차원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사·분석 내용에 대한 사례분석의 틀과 방법을 다음 표1와 같이 작성하여 정리하였다.

[표 1] 관련성 분석의 틀 및 방법

차원	분석적 요점	분석적 방법
전시된 '문화 권한 부여'	1.민족커뮤니티 소재지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정책에서 "문화적 권한 부여" 상황. 2.무형문화유산 전시활동에서 커뮤니티의 조직구조 및 주도적 상황.	문헌 자료 현장 조사 인터뷰
전시된 '문화 정체성	1.민족 커뮤니티의 민족 문화에 대한 인식. 2.민족 커뮤니티 거주자의 민족 문화 전시 인가도.	
전시된 '커뮤니티 참여	1.무형문화재의 구체적인 전시 상황. 2.민족 커뮤니티 주민들이 전시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분석해야 할 주요 속성에 따라 해당 조사 및 분석 방법은 표 2에 나와 있다.

[표 2] 조사 분석 방법의 조작 요령

방법 종류	조작 개요
문헌 자료	책, 논문, 보고서, 정책 문서 등 연구 사례와 관련된 문헌을 찾고 수집한다.
현장 조사	사례가 속한 민족 커뮤니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주로 커뮤니티의 무형 문화 유산 전시 활동을 조사한다.
인터뷰	무형 문화유산 전시 활동에 대한 커뮤니티 그룹의 의견과 태도를 수집하기 위해 민족 커뮤니티 그룹을 인터뷰한다.

15) UNESCO, 2003년 무형문화재보호협약 기본문서(2016년판), 유네스코, 2016,p.15.

4. 관련성 분석을 위한 사례 분석

4-1. 사례 선정 이유

(1)중국 귀주(貴州) 소칸 장각묘족(梭戛長角苗族) 개황. 중국 귀주(貴州) 소칸 장각묘족(梭戛長角苗族)종족은 구이저우성 류판수이시 류지특구 와 즈진현 사이의 경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면적은 120평방킬로미터, 총 인구는 5,000명 미만이다. 이곳의 소수민족은 쇠뿔 모양의 머리 장식을 한 묘족 계열로 점차 롱자자이를 중심으로 12개의 묘족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산으로 둘러싸인 데다 울창한 삼림 등 자연 장벽의 자연환경 때문에 1990년대 중반까지 이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는 것, 그들은 전통 명절, 의례, 가무, 복식, 전통 기예 등 풍부한 민풍과 민속을 보존하여 독특한 문화유산 경관을 형성하였다.

(2)중국 귀주(貴州) 소칸 장각묘족(梭戛長角苗族)의 문화 보호.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서 소수민족의 문화생태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노르웨이 양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관심과 주도하에 중국 귀주(貴州) 소칸 장각묘족(梭戛長角苗族) 집단이 위치한 지역에 아시아 최초의 민족문화생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생태박물관을 설립했으며, 이는 마을 공동체를 단위로 하는 담장이 없는 '생체 박물관'이다. 장각묘족(长角苗族) 그룹을 주체로 하여 민족 마을 전체가 전시 공간이며 민족 공동체의 삶이 전시 콘텐츠이다.

(3)장각묘족 (長角苗族) 집단은 그 민족 문화의 소유자이다.일반 박물관의 전시활동이 전문가와 학자들이 주도하는 것과 달리 문화의 발원지인 무형문화유산의 전시를 한 전시 주도에서는 주로 이 지역사회의 민족 집단을 주체로 하고 있다.

이 사례는 민족 집단과 민족 문화 유산의 보호 배경과 문화 전시에서 민족 집단의 주도적 역할을 기반으로 이 프로젝트의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

4-2. 사례 분석

4-2-1. 전시 중 '문화 권한 부여'의 구현

(1) 노르웨이 전문가의 지도 하에 소카 장각 묘목 생태 박물관은 2000년 8월 '六枝 원칙'을 제안했다. 이 원칙은 소가 생태 박물관의 운영 관행에서 요약된 이론적 이해이며 소가 생태 박물관 건설에 대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한다. 이 원칙은 주로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제시한다. 첫째, 마을 사람들은 문화의 소유자이며 문화를 인식하고 해석할 권리가 있다. 둘째, 문화의

의미와 가치는 사람과 연결되어야 하며 강화되어야 한다. '六枝 원칙'의 핵심 개념에서 그 민족의 문화적 소유권이 지역 주민에게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는 정책 문헌에 나타난 문화적 권한 부여의 특성이다.

(2) 관련 문헌을 검토한 후 생태 박물관의 개발 계획의 조직 및 개발은 표 3에 나와 있다.

[표 3] 조직구조 발전상황

계단	발전 개황	책임 개황
초기 단계	정부 및 전문가 주도	자료정보센터 구축, 문화원상 보호 및 전시 유지.
건설 단계	책임전담팀 구성: 개관지도팀, 과학자문팀, 기획건설팀	지역 민족 그룹과 소통하고 생태 박물관의 다양한 사물을 건설하고 발전시킨다.
개방 단계	건설 단계의 세 가지 전담팀 외에, 촌민 조직인 촌민 관리 위원회를 설립했다.	3개의 특별 그룹과 마을 주민 관리 위원회는 박물관 개발 문제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상호 지원하고 제안하지만 어느 쪽도 결정할 권리가 없다.

민족생태박물관의 조직과 발전 현황과 책임 현황으로 볼 때 생태박물관은 처음에는 정부와 전문가의 주도적 차원에서 설립되었지만 생태박물관의 실질적인 발전은 문화적 주도권의 이전을 반영하고 민족생태박물관에 대한 다양한 문화 홍보 및 전시 작업은 지역 민족 공동체가 주도해야 한다.

4-2-2. 전시 중 '문화 정체성'의 구현

장각묘족(長角苗族) 커뮤니티는 오랫동안 폐쇄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생활 방식은 상대적으로 원시적이다. 관련 중국 부처가 장각묘족(長角苗族) 지역에 생태 박물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이후로 이곳의 원래 생태 운영 시스템이 깨지기 시작 했다. 정부와 학계에서 온 '외래인'은 원래 장각묘족(長角苗族)의 전통 문화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도였지만 장각묘족(長角苗族) 에게 새로운 개념과 현대 문명과 주류 문화의 영향을 미쳤다. 장각묘족(長角苗族) 원주민은 인지와 가치 판단에서 전문가와 학자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대 문명의 충격에 직면하여 자기 문화의 구체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조사된 문헌과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는 이제 표 4와 같이 국제 생태 박물관 전문가, 중국 박물관 전문가 및 장각묘족(長角苗族) 커뮤니티의 세 가지 관점에서 민족 문화 발전의 인식을 설명한다.[16]

[표 4] 서로 다른 시각의 "문화적 정체성" 관념

분류	'문화 정체성'관념에 대한 개황
John.Gjestrum으로 대표되는 국제생태박물관 전문가	문화보호, 생활양식과 생활경로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장각묘족(長角苗族)은 항상 문화 전통의 순수성을 유지에 따라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의 보호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의 박물관 기구	장각묘족(長角苗族)은 문화적 전통의 순결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 외에도 외부 세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여 장각묘족(長角苗族)이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인식의 관점에서 자신의 세거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뷰	경제발전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본 민족의 문화발전이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위의 표에서 어느 주체의 관점에서든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목표의 관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공통의 목표에 속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필자는 현지의 문화 전시와 홍보를 담당하는 몇몇 주민들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민족 문화 정체성과 대외 전시 태도를 표 5에 요약했다.

[표 5] 인터뷰 중 문화와 전시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태도 개요

이름	직책	태도 개요
양얼메 楊二妹	문화홍보원 (군중대표)	'우리 민족문화는 전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 알리기에 힘써야 한다. 각종 문화 전시행사는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문화 홍보에도 큰 효과가 있다.'
슝리 熊麗	전통의상 제작 여공	'현대적이고 편리한 생활방식으로 인해 우리의 전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만약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외부에 홍보하고 전시하지 않는다면, 몇 세대가 지나면 많은 전통적인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웅광진 熊光珍	문화 계승자	'문화 계승자로 임명되면서 민족문화를 전파해야 할 책임을 느꼈다.'
슝해펀 熊海芬	문화 계승자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한 세대 한 세대 이어가야 하고, 우리 문화를 보여주면서 생활수준을 향상시킨 것은 값진 일이다.'

16)장송쑹(張曉松), 생태 보호 이념에 따른 」장각묘(長角苗)문,귀주(貴州)민족연구, No.81, 2000, p.122.

왕운영 王雲英	문화 계승자	'권한 있는 문화 유산자가 자랑스럽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보람을 느낀다.'

조사에 따르면 생태박물관이 민족문화와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이후 외래문화와 현대문명의 영향으로 민족공동체 주민들이 한때 전통문화를 소극적으로 유지했고 심지어 배척과 버림받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 관광 및 문화 전시 및 홍보 활동의 발전으로 그들에게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고 지역 주민들은 점차 자신의 문화의 독특함과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문화 관광 활동의 촉진은 장각묘족(長角苗族) 커뮤니티의 무형 문화유산의 진위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러한 외부 영향으로 장각묘족(長角苗族) 그룹은 문화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민족 전통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인터뷰 중 응답자들은 경제적 이익과 문화 전시 및 보호를 연결하는 가치 개념을 보여주었다.

4-2-3. 전시 중 '커뮤니티 참여'의 구현

저자의 조사를 통해 민족공동체의 현재 주요 무형문화유산 전시활동은 민족공동체의 전통문화 전시활동(표 6)과 민족공동체 집단의 제3자 플랫폼(표 7)을 활용하여 민족문화를 홍보하는 전시활동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표 6] 민족커뮤니티 내 전통문화 전시행사

민속 명절 시간		
그림		
개요	전통 풍습과 특정 상황에 따라 매년 축제 시기에 맞춰 꽃놀이 축제(跳花節), 당산제(祭神樹), 장의(打嘎)등의 전통 민속 행사가 열림	
일상 전시 시간		
그림		
개요	생태박물관의 협조로 마을 주민들이 공연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지역 주민이 문화전승자로서 내방객에게 전통가무, 음악, 의식 등 민속 홍보를 한다. 섬유, 자수, 왁스 염색 및 기타 기술을 시연	

[표 7] 외부 플랫폼 빌리는 문화 전시 행사

전통 기예류 경기		
그림		
개요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주관하는 자수, 납염, 음악, 전통복식디자인 등 전통문화 경연대회	
문화 홍보 행사와 문화 창작품 전시회		
그림		
개요	정부 기관 또는 민간 기관에서 조직한 다양한 문화 홍보 활동, 문화 및 창작 제품전시회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민족 무형 문화유산이 보여주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커뮤니티 주민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모두 민족 문화를 전시하는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

4-3. 사례분석 결과

위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무형문화 전시와 민족공동체와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문화권한 부여'의 관점에서 장각묘족(長角苗族)커뮤니티 그룹은 문화의 소유권과 문화 전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초기에 이 민족커뮤니티의 문화유산 보존과 전시는 주로 정부와 전문가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민족커뮤니티 이 주체가 되어 정부와 전문가들이 전시 활동의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 되었다. 둘째, '문화 정체성'의 관점에서 커뮤니티 그룹의 문화 전시 활동은 그룹 자체의 문화에 대한 가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이 사례의 장각묘족(長角苗族)그룹은 자체 문화 전시 활동이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자체 문화의 가치 인식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이 그룹은 자신의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문화를 외부에 과시하려는 의도를 갖게 된다. 셋째, '커뮤니티 참여' 차원에서 커뮤니티 그룹은 무형문

화유산 전시 활동의 주체이다. 장각묘족(長角苗族)그룹은 민족의 전통 민속 문화 활동이나 대외적으로 민족 문화를 홍보하는 전시 활동에서 모두 주체이다.민족 문화의 소유자로서 그룹 자체의 생활 방식과 문화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문화 전시에서 '커뮤니티 참여'의 표현이다. 사례조사에서 해당 민족 집단은 고유의 언어체계를 가지고 있고 의사소통에 일정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주로 문화유산의 주요 책임자를 방문하며, 인구의 유형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나타나는 의견과 태도도 어느 정도 단편적이다. 그러나 전통 문화와 생활 방식의 지속이 민족 공동체 주민들의 현재 생활 발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문화 전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5. 결론

이 글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문화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 문화를 보호하는 맥락에서 연구되었다. 2장에서는 먼저 '커뮤니티' 개념과 '무형문화유산' 개념에서 시작하여둘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3장은 UNESCO에서 발행한 2003년『 무형 문화재 보호 조약 』의 내용에 대해 '문화적 권한 부여', '문화적 정체성' 및 '지역사회 참여'의 세 가지 차원을 분석하고 이 세 가지 차원으로 민족 무형문화유산 전시 활동과 민족 커뮤니티 간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그런 다음 주제의 연구 목적에 따라 상관 분석의 프레임워크와 사례 연구 방법을 도출한다. 연구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족 커뮤니티 그룹이 민족 무형 문화 전시 활동의 주체라는 중요성을 반영한다. '문화적 권한 부여'의 차원에서 주체의 주도성을 보여준다. '문화 정체성' 차원에서 주체의 가치관 방향을 제시한다. '커뮤니티 참여' 차원에서 주체의 높은 참여도를 보여준다. 민족 문화 커뮤니티는 민족 문화 유산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로서 문화 유산의 보존, 관리 및 전시를 위한 직접적인 원동력이 있다. 민족 커뮤니티 그룹과 민족 문화 전시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은 민족 문화 유산의 유산을 보다 역동적으로 계승하고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서 보다 완전한 발전과 진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확산], 오叡인 (吳叡人) 옮김, 상하이 세기 출판사, 2005.
2. 방이려 (方李莉), 룽카자(龍憂寨)이 사람들의 생활변천-소칸 장각묘족(梭憂長角苗族) 생태박물관 연구, 학원출판사, 2010.
3. Blake Janet. 'UNESCO's 2003 Conven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implications of community involvement i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London:Routledge, 2008.
4. 팔모추레(巴莫曲布嫫) 저, 장링 (張玲) 옮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윤리원칙', 민족문학연구, 2016. Vol.34, No.03.
5. 장송쑹(張曉松), 생태 보호 이념에 따른 장각묘 (長角苗) 문화, 귀주(貴州)민족연구, General. 2000. Vol.01, No.018.
6. Etzioni Amitai, Creating Good Communities and Good Societies, Article in Contemporary Sociology A Journal of Reviews,2000.Vol.29, No.1.
7. Deacon Harriet & Smeets Rieks, "Authenticity, Value and Community Involvement in Heritage Management under the World Heritage and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s",Heritage & Society, 2013.Vol.6.
8. UNESCO, 2003년 무형문화재보호협약 기본문서(2016년판), 유네스코, 2016.
9. www.wipo.int
10. www.gov.cn